



1 열게 부친 전병 피의 바삭함이 인상적이었던 메밀전병. 2 메밀의 구수한 풍미와 메밀 순의 아삭거리는 식감이 어우러진 알리오올리오풍 메밀 파스타. 3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개발한 한우불고기 아라리. 불고기를 스테이크와 같은 양식으로 재해석했는데, 된장 마요네즈 소스가 입맛을 돋운다.

메밀국수의 화려한 변신, 한우불고기의 재해석

‘2018 강원 특선 음식’을 맛보다

알리오올리오 떠올리는 ‘메밀파스타’부터 된장마요네즈 소스 어우러진 ‘한우불고기’ 바삭바삭! 막걸리 부르는 ‘메밀전병’까지

봉평이란 이름은 머리 속에 자연스럽게 메밀이란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런 연상작용은 작가 이효석의 공이 지대하다. 그의 걸작 ‘메밀꽃 필 무렵’이 없었다면 달빛 아래 흐드러게 펼쳐진 메밀꽃밭의 정취를 몰랐을 것이다. 강원도 곳곳에서 맛볼 수 있는 게 메밀 음식이지만, 봉평은 그런 문학적 배경이 주는 남다른 느낌이 있다. ‘초가집 옛골’은 봉평의 메밀음식 전문점이다. 이곳에서 올림픽에 맞춰 개발한 ‘2018 강원 특선 음식’ 중 메밀파스타 연인과 한우불고기 아라리를 맛볼 수 있었다.

●은근한 풍미, 메밀 파스타 ‘연인’

옛골의 메밀파스타는 100% 메밀의 순면을 사용한다. 파스타의 이름 ‘연인’은 메밀의 꽃말이다. 첫 모습은 올리브 오일에 마늘, 페페로치노를 넣어 만드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를 떠올리게 한다. 면 위에 가니시로 소복하게 올린 것은 메밀의 어린 순. 작은 튀김가루처럼 뿌린 것은 메밀쌀 튀김이다. 방울토마토, 청고추 슬라이스 등으로 색감을 맞추어 제법 비주얼이 화사하다.

흔히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는 면을 완벽한 알덴테(썰는 맛이 나도록 살짝 덜 익은 상태)로 삶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툭툭 끊어지는 식감이 특징이자 매력인 메밀면을 그렇게 삶으면 제맛이 날까. 역시나 한 입 먹어보니 면은 우리 방식을 따랐다. 구수한 메밀향이 제대로 난다. 메밀의 다소 심심한 식감을 도와주는 것은 메밀순과 메밀쌀튀김이다. 아삭거리는 메밀순과 고소한 메밀쌀 튀김의 먹는 재미가 남다르다. 소스는 오일에 간장을 가미했다는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다. 메밀 고유의 풍미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숨습하고 순하다. 하지만 막국수의 자극적인 양념을 좋아하는 입맛이라면 지나치게 담백해 밍밍할 수도 있다.

●된장마요네즈 소스가 신의 한수, 한우불고기 아라리

일단 외관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불고기의 고정관념을 깬 메뉴이다. 양념한 고기를 볼판에 올려놓고 각자 덜어먹는 방식을 탈피, 완자모양으로 만들었다. 또한 같은 접시에 야채를 풍성하게 담아 영양적인 밸런스도 고려했다. 여기에도 메밀 순을 사용해 아삭거리는 식감을 즐길 수 있다. 고기는 지역 특산인 대관령 한우다. 완자모양이지만 고기를 잘게 다져 빚지 않아 한우의 식감을 살렸다. 인상적인 것은 불고기의 소스. 메밀된장과 마요네즈를 섞어 된장 특유의 냄새는 뒤로 숨기고 독특한 맛을 살렸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생각했는데, 적당히 짭조름하

면서 감칠 맛이 나는 것이 불고기 외에 밥 등 다른 음식과 먹기도 좋았다.

●크레페를 떠올리게 하는 메밀전병

비록 ‘2018 강원 특선음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것은 메밀전병이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의외로 메밀전병을 맛있게 하는 집

은 쉽게 만나기 어렵다. 전병이 너무 두껍거나 속을 과도하게 넣어 마치 메밀만두를 연상케 하는 집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이곳의 메밀전병은 무엇보다 프랑스 크레페를 떠올릴 정도로 얇게 부쳐 바삭하면서 적당히 하늘거리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 적당히 넣은 속과도 잘 어울려 막걸리 안주로도 궁합이 좋았다.

봉평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평창·강릉·정선 대표 10가지 특별 메뉴

■ ‘2018 강원 특선 음식’은?

평창 메밀파스타·강릉 제복 웡심이 등 영월 출신 에드워드 권 메뉴 개발 참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개발한 특별 메뉴이다. ‘2018 강원 특선 음식’이라고 다소 애매한(?) 이름이 된 것은 공식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이란 명칭이나 로고 사용을 워낙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감자, 황태, 메밀, 송어 등 지역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서양 요리의 느낌으로 재해석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에드워드 권 셰프가 메뉴 개발에

참여했다.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역마다 10가지씩 특선메뉴를 만들었다.

우선 평창 10선은 한우불고기, 메밀파스타와 함께 송어뽕밥, 송어만두, 황태갈국수, 메밀더덕물가스, 비빔밥샐러드, 감자 굴리미, 사과파이, 초코감자 등이다. 강릉 10선은 지역 명물 초당두부와 감자웅심이를 테마로 한 음식이 특징. 삼계웅심이, 제복 웡심이, 크림감자 웡심이, 마파두부탕수, 초당두부밥상, 두부삼합, 두부샐러드, 삼선비빔밥, 바다해물밥상, 해물뽕배기 등이다. 정선은 곤드레나물을 적극 활용했다. 곤드레 비빔밥을 비롯해 곤드레 버섯불고기, 더덕보쌈, 감자 봉생이밥, 풋등치기 국수, 채만두, 느른국, 황기닭백숙, 황기족발, 옥수수 푸딩 등을 개발했다.

김재범 기자

소프라노 신텔라 “본명이에요, 신데렐라처럼 자라라고”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클래식 무대·뮤지컬·방송 전방위 활동 “내 정체성은 소프라노…창법도 클래식 지친 삶에 힘이 되는 노래 부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신텔라(37)가 하이 톤의 소프라노 창법으로 인사를 건네 왔다. 물론 농담이다. 그냥 밝고 건강한 인사였다.

신텔라는 클래식 성악가다. 클래식 성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통 엘리트코스’ 또는 ‘왕의 길’로 여겨지는 ‘예원-서울예고-서울대-유학’위를 걸었다. 조수미가 나온 학교로도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체칠리아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5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2006년 귀국했다.

요즘은 신텔라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워낙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은 덕이다.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팝·재즈공연, OST 참여, TV·라디오 방송, 교수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뮤지컬 ‘설죽홀츠’에서는 여주인공 루시존스 역을 맡기도 했다. KBS 1TV 열린음악회의 단골게스트로, 특히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를 불러 대히트를 쳤다.

“본명이십니까?”. 사실 가장 궁금했다. 설마 싶었는데 본명이라고 했다.

“아빠가 첫 딸을 낳고 너무 예뻐 보이셨나 봐

요. 신데렐라처럼 예쁘게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텔라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딸을 둔 세상의 아빠들은 모두 딸 바보다. 딸의 이름을 ‘텔라’라고 짓고 흐트란 아빠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참고로 신텔라의 남동생은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다.

신텔라가 처음 ‘노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1992년 MBC창작동요제에서 ‘부채춤’이란 곡으로 대상을 타면서였다. CBS전국동요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자연스럽게 성악가를 꿈꾸게 되었고,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로 진학했다.

“하지만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음악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저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너 좋아하는 거 해라’하셨을 뿐이죠.”

음악학교 진학과 유학도 신텔라는 “모두 흐르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라고 했다. 지금의 활발한 활동도 마찬가지다. 워낙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다 보니 신텔라는 크로스오버 가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뮤지컬 배우로도 유명한 임태경, 카이 등이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가수들이다.

“제 정체성은 소프라노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지만 소프라노 신텔라로서 부르는 거니까요. 창법도 클래식 창법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신텔라는 크로스오버 장르도 노래하는 클래식 성악가이다. 소프라노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포지션’이 있다.

같은 소프라노라고 해도 조수미가 드라마틱하고 하이 톤 발성을 주특기로 하는 콜로라투리안 데 비해 신영옥은 가볍고 맑은 레체로의 소리를 갖고 있다. 신텔라도 레체로 계열의 소프라노이다.

2006년 귀국 후 휴식기가 있었다. 프로로서 첫 국내 무대는 오페라였다. 고양 아람누리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오디션에 나갔다가 바로 합격을 했다. 딱 한 번, 그것도 몇 년 만에 무대에 섰을 뿐이지만 ‘준비된 예술가’를 알아보는 눈은 많았다. 그 뒤로 신텔라의 스케줄 북은 빨간 글씨로 가득하다.

“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해서 살아오지 않았듯, 앞으로도 흘러가는 대로 살 거예요. 다만 노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런 음악가가 되는 게 유일한 제 욕심이자 계획입니다.”

신텔라는 21일 기타리스트 함준호와 서울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신년음악회를 연다. 두 사람의 노래와 연주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작고 아담하지만 ‘큰 힘’을 가진 연주회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신텔라의 건강하고 밝은 예술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쪽에도 전해져 왔다. 그의 말과 표정은 노래와 같은 ‘힘’을 갖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신텔라가 말했다 “그런데 기자님 참 동안이시네요”. 물론 농담일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팝·재즈공연, OST 참여, TV·라디오 방송, 교수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신텔라. 김진원 기자 kwangshin00@donga.com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열라이드’(11일 개봉 |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 주연 브래드 피트·마리옹 코티아르 | 124분 | 15세 관람가)

1942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영국 정보국 장교와 프랑스 여성 비밀요원은 독일 대사를 암살 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런던으로 돌아온 둘은 결혼해 딸을 낳고 살지만 남자는 정보국으로부터 아내가 스파이일지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묵직하게 그린 영화. 주연배우 브래드 피트와 마리옹 코티아르는 흡사 진짜 사랑에 빠지는 듯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아하고 비극적인 리브스토리를 완성한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영화 촬영 직후 염문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이 오랜만에 내놓는 사랑 이야기다.

●러블리즈 ‘겨울나라의 러블리즈’(13~15일 |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 100분 | 만7세)

걸그룹 러블리즈의 첫 단독 공연. 인기 예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모티프로 무대를 꾸미고, 멤버들은 동화 속 캐릭터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노래한다. 올 라이브 밴드 무대와 함께 신곡도 처음 공개한다. 데뷔곡 ‘캔디 펠리 러브’로 시작해 ‘안녕’ ‘아쭈’ ‘데스티니’ 등 히트곡들을 비롯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반 수록곡들을 라이브로 선사한다. 러블리즈 특유의 사랑스런 퍼포먼스도 볼 수 있다. 문의 1544-1555

●제프 벡 ‘제프 벡, 라이브 인 서울’(1월22일 오후6시 |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피아홀 | 100분 | 만7세)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제프 벡의 세 번째 내한 공연. 6년 만인 작년 7월 발표한 새 앨범 ‘라우드 헤일러’의 월드투어 일환이다. 밴드 ‘더 아드버즈’에서 나와 솔로로 활동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제프 벡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자신만의 음악영역을 개척해온 전설적인 뮤지션으로 추앙받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록 연주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문의 02-563-0595.

주말엔 전시회

●김 발렌티노 개인전(~17일 | 서울 명동갤러리1898 제3전시실)

‘불광동의 시 배달부’로 불리는 가톨릭 화가 겸 시인 김 발렌티노(58)가 ‘대한민국 웃음꽃 이야기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17일까지 서울 명동갤러리1898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인생역정을 담은 시화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먹물을 찍은 붓으로 한지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들에서 작가의 지난한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시 수익금은 청년사업자금으로 전액 기부된다. 전시기간에는 그룹 소리새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킥브라더스 밴드 등의 갤러리 공연이 펼쳐진다.

엄마 아바 어디가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1.14~2.5 |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및 3개 읍면일원)

1월7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이상 고온과 폭우로 인해 일주일 연기됐다. 2003년 시작해 매년 100만 명이 참가하는 강원지역의 대표축제이다. 하이라이프는 산천어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잡기 등의 산천어 체험도 있다.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 놀이 낚시터를 따로 운영한다. 눈썰매, 얼음썰매, 창작썰매, 얼음이 자전거 등 겨울 얼음과 눈을 체험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행사는 선등거리공연, 실내얼음조각광장, 겨울문화촌 등이 열린다.

●안성빙어축제(1.14~2.5 | 안성시 두매낚시터)

겨울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빙어낚시, 눈썰매, 얼음썰매, 눈썰매, 민속놀이체험, 맨손고기잡기 등의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축제가 열리는 광혜원 저수지는 차려산맥 물줄기의 계곡형 1급수 저수지다. 상수원 지역에 오염원이 없어 1급수를 자랑하며 주변 경관도 수려하다. 20년 동안 조성한 빙어 자원을 바탕으로 2012년 처음 빙어축제를 시작했다. 빙어맨손잡기, 송어 맨손잡기,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팽이, 연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